

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올해 500만 그루를 시작으로 향후 4년 간('19.~'22.) 1,500만 그루를 추가로 식재, 민선 6~7기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생활밀착형 '도시숲'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폭염, 도심 열섬현상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나무를 심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나무심기, 숲 조성 활동, 도시림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명시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중·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민간단체, 자치구와 협력하여 예산 지원 하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에게 숲 조성 활동 공적이 탁월한 자치구 또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무심기 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백년을 내다보며 도시숲을 가꾸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과 여러 동료·선배의원님들과 함께, 나무심기 활성화 사항을 정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더 푸르른 서울을 만들어 우리의 자식과 그 후세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과 동료·선배의원님들의 발의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